

Chung, Daihyun (2005), "Intentionality of integration(誠)  
-from dualistic intentionality to yinyang intentionality",  
*Sogang Journal of Philosophy*, 9: 73-88.

## 誠의 지향성: 이원적 지향성에서 음양적 지향성으로

동양전통의 자연 친화성은 철학적으로 어떻게 조명될 수 있는가? 서양전통은 인간-자연 불연속성을 논변해왔지만, 인간-자연 지속성은 어떤 논변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자연 친화성은 윤리, 환경, 태도에서 매력적이고 당위적으로 나타나지만 그 철학적 조명은 아직 미흡하다. 반면에, 인간-자연불연속성은 양자 사이에 넘나들 수 없는 틈이 있다고 주장하여 질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논변이 서양문화사를 압도해 왔다. 인간-자연 지속성 여부의 논의의 핵심에는 지향성이라는 주제가 자리하고 있다. 인간은 그리고 인간만이 지향성이라는 성질을 만족하는 사유의 능력을 가지면서 그 이외의 존재는 그러한 능력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글은 인간-자연 불연속성은 심신이원론을 전제할 때 설득력을 갖지만 이원론에 기초한 지향성은 주장되기 어렵다(가절)는 점을 주장한다. 그 대신, 『중용』이 제시한 만물의 작동 원리로서의 誠 개념은 마음을 정보 처리의 복합성의 정도를 갖는 구조로 해석될 수 있다(나절)고 믿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誠의 능력은 음양적 지향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다절) 고 생각한다.

### (가) 이원적 지향성에서 언어적 지향성으로

(가1) 브렌타노의 이원적 지향성

“모든 심성 현상은 중세 철학자들이 ‘지향적 비존재(the intentional and also mental inexistence of an object)’라고 불렀고, 우리들이 ‘내용의 지칭, 대상의 방향성 또는 내재적 대상성’이라 부르는 것으로 규정된다. . . 말할 때 무엇인가가 제시되고, 판단할 때 무엇인가가 긍정되거나 부정되고, 사랑에서 무엇인가가 사랑되고, 증오에서 무엇인가가 증오되고, 욕망에서 무엇인가가 욕망된다. . . .

이러한 지향적 비존재는 심성 현상에 특수한 성질이고 어떤 물리적 현상에서도 비슷한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sup>1)</sup>

브렌타노는 지향성에 대한 전통 철학의 존재론적 논의를 위와 같이 요약하면서 이를 자신의 심리학적 입장과 동일화 하고 있다. 그러나 후기에 가서는 전통 철학의 존재론적 요소를 포기하고 자신의 심리적 요소만을 유지한다. 그리하여 물리적 현상은 비지향적인 문장으로 표현되지만

(11) 심리적 현상은 대상지향(directedness upon an object)  
적이고 내용연관(relatedness to content) 적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브렌타노가 존재론적 요소를 포기한 것은 잘한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철학자들이 지향적 명제의 특징으로 그 부속절의 비존재 문장 함축, 단칭명사 대치가능성, 지칭 불투명성으로 제안하였지만 모두 만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브렌타노가 그의 심리적 요소를 유지하여, 이는 인간을 물리주의로 환원할 수 없는 특징적 근거로 채택 하여 후대의 분석철학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가2) 치즘 지향성의 언어적 구조

치즘은 분석철학에서 지향성을 분석하기 시작한 최초의 철학자이다. 그는 한동안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12) 표현 E는 지향적이다 ↔ 단칭명사를 사용하고 있는 단순 직설  
문장 E는 그 문장도 그것의 부정도 그 단칭명사가  
지시하는 것의 존재나 비존재를 함축하지 않는다; 또는

---

1) Franz Brentano, *Psychologie vom empirischen Standpunkt*(1874),  
Quoted in: Roderick Chisholm, "Intentionality", *The Encyclopedia of  
Philosophy*, Macmillan, 1966, Volume 4, p. 201.

명제절을 가진 문장 E와 또 그 부정문의 어느 것도 그 명제절의 진위를 함축하지 않는다.

그러나 치즘은 지칭불투명성, 대치율 실패 같은 기준처럼 이러한 진리치 함축 기준 (I2)도 지향성 여부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치즘은 그 반례로, “저 여성은 인어공주를 닮았다”라는 명제의 존재일반화는 어떤 명사절의 참도 함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대신 치즘이 제안하는 것은

(I3) 모든 단순 접두문 M, 모든 문장 p에 대하여,  
 $M(p)$ 는 논리적으로 우유적이다  $\rightarrow$  M은 지향적이다<sup>2)</sup>

라는 기준이다. 예를 들어, “이것은 동어반복이다”와 “그는 믿는다”라는 두 접두문을 “한 국가의 수도는 그 수도의 가장 큰 도시를 의미한다”에 적용하여, 접두문들은 기준 통과 여부에 따라 전자는 비지향적이지만 후자는 지향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치즘의 지향성 분석은 브렌타노의 이원론적 지향성 논의를 이원론의 형이상학적 부담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운 언어 논리차원으로 올려놓았다고 믿는다. 치즘적 분석철학의 기여라고 보인다. 그러나 치즘은 정당성 개념의 논의 등에서 보이는 것처럼 어떤 이원론적 경향성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것인가? 그는 아직도 언어적 표상의 지향성은 정신적 표상의 지향성에 근거한다고 믿는 것이 아닐까?

(가3) 이원론 극복의 지향성 논의

데이빗슨은 존재론적으로 물리주의를 지지하면서도 심성의 자율성을 주장하여 믿음과 합리성의 총체성을 그 핵심적 요소로 선택한다. 물적 사건과 심적 사건간의 유형적 관계를 거부하여 무법칙성을 제안하지만 개항적 사건간의 약한 수반에 기초하여 지향성을 믿음과 합리성의 총체적 성질로

---

2) Roderick Chisholm, "Intentionality", *The Encyclopedia of Philosophy*, Macmillan, 1966, Volume 4, p. 203-204.

파악할 수 있다고 믿는다.<sup>3)</sup> 지향성이 이원론적 전통으로부터 단절되는 획기적 제안인 것이다.

데이빗슨이 지향성을 언어와 관련짓지 않고 있었다면, 민찬홍은 치증과 데이빗슨을 종합한 관점을 채택하여, 의미와 믿음의 상호 의존성에 주목한다<sup>4)</sup>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지향성에 대한 그의 관점은 다음과 같이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14) 표현 E는 지향적이다 ↔ E의 의미는 E와 관련된 믿음과 상호의존적이다.

명제 (14)의 과제는 치증이 이룩한 언어적 전회 안에서 어떻게 이원론을 극복하는 데이빗슨 관점을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명제 (14)는 다음과 같이 달리 표현될 수 있다.

(15) 표현 E는 지향적이다 ↔ E는 달리 해석 또는 생활될 수 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것이다. 의미와 믿음, 또는 이들을 해석이나 생활 가능성 개념으로 단일화하여 어떻게 비이원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이 물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가4) 지향성의 비이원적 구조: 생활양식성

명제 (14)과 (15)를 어떻게 지지할 수 있는가? 한 가지 방식은 “지향성은 이원론적이지 아니다”라는 가설을 생활양식 개념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은 논변 (F)를 구성하는 것이다:

---

3) Donald Davidson, "Intending", *Essays on Actions and Events*, Oxford: Clarendon Press, 2nd edn., 2001.

4) 민찬홍, 「지향성과 분석철학-해석론, 인과론, 자연화」, 『시대와 사상』, 한국철학사상연구회, 33-62; 민찬홍, 「믿음 : 명제태도의 일반이론을 위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5.

- (F1) 언어는 그 의미를 진리론적으로가 아니라 언어 공동체의 생활양식에 의하여 부여 받는다;
- (F2) 언어 공동체의 생활양식은 개인이나 집단의 심리적 상태가 아니라 언어 공동체가 자연사의 부분으로서 살아 내는 것이다;
- (F3) 자연사로서의 생활양식은 이원적 뿔의 한 쪽이 아니다.

논변 (F)의 전제들은 다른 기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적이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총체적 관찰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어에는 “안다”와 “믿는다”의 표현들이 쌍을 이룬다. 어떤 사람은 “믿는다”의 행위에서 거짓 명제를 대상으로 할 수 있지만 “안다”의 행위에서는 그럴 수 없다. 두 표현의 이러한 관계의 논리는 어떻게 구성되었을까? 한국어의 시원적 공동체가 그렇게 제정하고, 합의하였을까? 더욱 놀라운 것은 두 표현의 쌍은 영어, 일본어 같은 다른 자연언어에서도 나타나고 동일한 관계의 논리를 유지한다. 그렇다면 자연언어 공동체들의 조상들이 합의하였을까?

의미부여로서의 생활양식 개념이 초견상 의문스러워 보였다. 그러나 “안다”와 “믿는다”의 표현들의 의미가 많은 자연언어에서 부여되었을 방식의 후보로 고려되었을 때 설득력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은 제정, 합의, 선포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언어 공동체들이 인간으로서의 삶을 유지해 가는 과정에서 도달한 의미 부여라고 보인다. “사랑한다”와 “좋아한다”의 짝을 비롯한 인간 자연언어들의 공통된 논리는 달리 설명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나) 誠: 마음 복합성의 정도**

“지성(至誠)이면 진성(盡性)하여 성기성물(成己成物: 나를 이루는 것과 만물을 이루는 것이 맞물려 있다)하고 성(聖)의 경지에 이른다”, 이것은 『중용』의 대의라고 생각한다. 『중용』은 이 대의를 인간만이 아니라 만물에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 가설이 전제하고 있는

(M1) 誠은 인간만이 아니라 만물의 마음 능력이다

라는 명제이다. 이 절에서는 『중용』의 이 전제를 어떻게 지지할 수 있는가를 고려하고자 한다. 『중용』의 전제를 지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전략적 명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M2) 마음은 단일한 실체의 종이 아니라 복합성의 정도를 갖는 개념이다.

마음은 영혼도 아니고 인간 사유의 능력도 아니라, 0\_\_\_\_1 사이의 정보 처리의 복합성의 정도를 허용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도식적 편의성으로 예시한다면, 무기물은 0.1; 식물은 0.2; 동물은 0.3; 인간은 0.4 와 같은 방식의 복합성의 정도를 갖는다고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지성이 발달된 외계인이 있다면 그 위의 복합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전략 명제 (M2)는 Dretske, Millikan 등의 믿음의 자연화 논변이나 Chalmers의 기초 현상성(proto-phenomenal)<sup>6)</sup> 같은 기존 논변으로 지지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진화 개념과 경우 적용으로부터 논의를 제안하고자 한다.

(나1) 종의 진화와 마음의 진화

“마음은 단일한 실체의 종이 아니라 복합성의 정도를 갖는 개념이다”라는 전략적 명제 (M2)는 진화논변을 통해 지지될 수 있을 것이다. “종이 진화하였다면 종의 마음도 진화하였다”는 것이다. 종의 진화는 단순한 개체 진화가 아니라 종의 개체들의 체계의 진화이다.

최근에 새로운 종의 발견이 보고 되었다. *Pierolapithecus*

---

5) “정보”를 참 문장, 신빙할만한 공표, 인과적 상관관계의 의미가 아니라, 사태의 통사적 구조로 파악한 샤논의 제안을 수용하고자 한다. C. E. Shannon, "A Mathematical Theory of Communication", Bell Systems Technical Journal, 27(1948), pp. 379-423.

6) David J. Chalmers, *The Conscious Mind: In Search of a Fundamental Theo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catalaunicus*<sup>7)</sup> 라는 종이다. 스페인에서 발견된 새로운 유인원 화석은 오랑우탄, 침팬지, 고릴라, 인간 등 현존하는 범 유인원의 가장 가까운 공통 조상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1300만년 전 살았던 ‘피에롤라피테쿠스 카탈라우니쿠스’는 바르셀로나 인근 엘 호스탈레트 드 피에롤라에서 발견된 것이다.

마음이 복합성의 정도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단일한 실체의 종이라는 전통적 가설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종이 진화하였다면 종의 마음도 진화하였다”라는 조건문을 부정하거나 그러한 단일 실체 후보를 제시하고 설득력 있는 논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논변이 제시될 때까지는 진화논변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 (나2) 마음의 경우 유형

전략적 명제는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람만이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면 사람의 마음은 다른 마음과는 어떤 차이를 가지며 유사성을 가질 것인가? “마음”이라는 개념을 동물, 식물, 무기체에 부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일 것인가? 여러 가지 마음들의 차이는 정도의 차이일 뿐 정보처리의 체계라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이하에서는 이들의 차이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논의는 그 논의의 성격상 잠정적이고 개괄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로저스(Carl R. Rogers)와 매슬로우(Abraham Maslow)의 심리학적 통찰<sup>8)</sup>에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로저스는 “유기체가 가진 한 가지 기본 경향 및 추구인은 유기체를 실현하고 유지하고 향상시키고자

---

7) “The new species, called *Pierolapithecus catalaunicus*, bears many of the anatomical hallmarks of present-day apes yet retains some primitive features which suggest it lies at the root of all human and great ape evolution.”(20 November 2004 11:59).

[http://news.independent.co.uk/world/science\\_technology/story.jsp?story=584397](http://news.independent.co.uk/world/science_technology/story.jsp?story=584397)

8) E. Jerry Phares 저, 홍숙기 역, 『성격심리학』, 박영사, 1987, 155쪽 & 174-176쪽.

하는 것이다”; “유기체 내에는 자기 자신을 유지하고 향상시켜주는 방향으로 그가 가진 모든 능력들을 개발하려는 경향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말한다. 로저스의 단일 동기론에 대해 매슬로우는 이를 세분화하여 인간 욕구의 서열을 제시하였다. 로저스와 매슬로우를 종합하여 “개체 경향성 서열”을 제안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개체 유지; 개체 적응; 생리적 욕구; 안전욕구; 소속과 사랑의 욕구; 존중욕구; 심미적 및 인지적 욕구; 개체 실현. 두 심리학자는 인간 마음의 문맥에서 논의하고 있지만 그들의 언급은 다른 존재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만큼 포용적 언어로 표현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인간 마음은 위의 “개체 경향성 서열”을 모두 구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 마음은 철학적으로도 관찰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 마음은 다른 존재자들과는 구별되는 여러 가지 특징 중 반성적 능력을 현저하게 갖는다. “김씨는 그의 생각 P를 반성 한다”라는 것은 “김씨는 지금 까지 P를 참이라고 믿었지만 이제 P가 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김씨의 반성은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오류가능성이나 비판에의 개방성을 함축한다. 이 능력은 다른 존재자들이 정보 처리에 있어서 갖지 못하는 인간이 현저하게 수행하는 능력이다.

그러나 인간이 문자언어를 갖게 된 1만 년 전에 이러한 반성적 사유를 얼마나 명료하게 할 수 있었을 것인가? 문자언어가 없었을 때의 인간들이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오류가능성을 허용했을 것인가? 문자언어 없이 추상적 사유에 한계가 있었다면 개념적 사유나 논리적 사유에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문자 언어가 없었던 시절의 인간의 반성 능력은 지금의 반성 능력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었을 것이다.

동물 마음은 “개체 경향성 서열”중에서 일부만 구현한다고 생각한다. 동물 마음과 인간 마음이 비교되는 지점이다. 또 하나의 비교점이 반성 능력에서 나타난다고 보인다. 한편으로, 벌의 반성능력은 인간의 그것과 다르다고 생각한다. 벌은 꿀 춤을 통하여 꿀이 있는 방향, 거리, 종류의 정보를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통사적 구조를 가지며 관찰자 벌들은 그에 따라 해석하여 행동한다. 그러나 칼 폰 프리쉬는 실험조작에 의하여 한 벌의 꿀 춤이 거짓



정보를 담는 것으로 계속 나타낸다고 할지라도 그 벌과 그 공동체는 그 벌의 잘못을 인식하는 구조를 갖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sup>9)</sup> 벌에게 언어가 있다면 참과 거짓의 구분을 하지 않는 언어이다. 따라서 반성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동물에게도 “유사 반성”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동물들은 먹이에 대한 취사 선택 행동 패턴에서 유사 반성 행동을 보이는 것이다. 먹이가 몸에 고통이나 해를 주었을 때 그 먹이를 다음에 피하는 것이다. 새는 색깔, 쥐는 맛, 벌은 발 감촉으로 피하는 것이다. 동물의 정보처리의 구조는 “먹이 후보-고통 여부-먹이 선정 여부”의 틀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나는 틀릴 수 있다”라는 인간 언어적 반성은 아니지만 동물의 “개체 경향성 서열”에 맞는 반성은 발생한다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식물 마음은 “개체 경향성 서열”의 8개의 항목 중에서 적어도 세 개의 경향성은 갖지 않지만 4개나 5개는 갖는다고 보인다. 개체 적응이나 생리적 욕구의 경향에서 식물들은 토양, 물, 빛의 입력만을 갖는 것일까? , 소리, 냄새의 자료나 정보가 입력된다는 보고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만일 이들 자료의 입력을 허용한다면 식물에도 인간 언어적 의미에서는 아니지만 식물적 차원의 희미한 시각, 청각, 촉각의 입력 양상을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 땅속줄기(rhizome)<sup>10)</sup>가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식물은 어떠한 순간에도 그

---

9) Karl von Frisch, *The Dance Language and Orientation of Bee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7.

10) "Unlike the tree, the rhizome is not the object of reproduction, neither external reproduction as image-tree nor internal reproduction as tree-structure. The rhizome is an antigenealogy. It is a short-term memory, or antimemory. The rhizome operates by variation, expansion, conquest, capture, offshoots. Unlike the graphic arts, drawing, or photography, unlike tracings, the rhizome pertains to a map that must be produced, constructed, a map that is always detachable, connectable, reversible, modifiable, and has multiple entryways and exits and its own lines of flight. It is tracings that must be put on the map, not the opposite. In contrast to centered (even polycentric) systems with hierarchical modes of communication and preestablished paths, the

체계 안에서 정보처리과정이 발생한다고 하여야 하지 않을까?

무기물에 마음의 자리를 허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가능할까? 울산 바위는 상온에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온도 변화의 어떤 치역을 넘을 때 울산 바위는 수축 반응을 할 것이다. 이러한 수축은 새 정보 입력에 대한 체계내적 정보 처리의 조정과 반응의 결과일 것이다.

이러한 문맥에서 차머즈의 온도계 논변<sup>11)</sup>은 흥미 할만 하다. 온도계는 세 가지 정보 상태들을 가지고 있다: 식음, 더움, 무동. 각각의 정보 상태에 감질 현상 상태가 대응되어있을 것을 상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보상태의 변화는 감질 현상 상태의 변화를 결과한다. 온도계가 된다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 정보처리과정이 단순하다면 대응되는 감질 현상 상태도 단순할 것이다. 온도계에 경험 능력을 귀인 하는 것에 대한 저항의 까닭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태도는 설명될 수 있다. (2.1) 경험이 요구하는 성질을 온도계는 갖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자명한 성질은 없다. (2.2) 온도계와 쥐가 정보처리 하는 과정에서 핵심적 요소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경험에 필요한 그러한 처리 요소는 보이지 않는다. (2.3) 온도계 체계에 의식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 인간 뇌에서도 의식의 역할은 보이지 않고, 의식을 상정하지 않고도 정보처리과정은 이해할 수 있다. (2.4) 온도계를 우리는 너무 잘 이해하여 의식을 요청할 필요가 없다: 온도계는 인간 뇌와 다를 바 없다. (2.5) 의식을 삼입하지 않고도 온도계를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인간 뇌를 만들 때도 의식은 공짜로 들어온다. (2.6) 온도계는 살아있지 않다: 신체 단절적 실리콘 뇌는

---

rhizome is an acentered, nonhierarchical, nonsignifying system with a General and without an organizing memory or central automation, defined solely by a circulation of states."; *A Thousand Plateaus: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by Gilles Deleuze and Felix Guattari. Translated by Brian Massumi.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1987, p. 21.

11) David J. Chalmers, *The Conscious Mind: In Search of a Fundamental Theo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pp. 293-296.

살아있다고 하기 어렵지만 의식을 가질 수 있다. (2.7) 온도계의 어디에 주체가 있을 것인가? 주체는 <소인간>이 아니고 전체 체계이다. 경험이 기본적 성질이라면 경험이 편재적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 (다) 誠의 陰陽的 지향성

誠이란 무엇인가? 이 단어의 어원은 무엇인가? 박종홍은 敬을 도입하여 誠에 대한 실존적 해석으로써 誠의 중요성을 일찍이 강조하였다. 말씀 표현에 이를 成의 조합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 어떻게 誠이 만물의 소이연(至誠이면 盡性)과 당이연(至誠으로 成己成物) 으로서의 질서를 담아내는 것일까?

중용의 다음과 같은 문헌은 그러한 물음의 조명에 도움이 된다: “誠으로 말미암아 밝아지는 것이 性이다(自誠明 謂之性)”(21장); “誠이 있으면 표현이 있다(誠則形, 23장); “誠이 없으면 만물도 없다(不誠 無物)”(25장). 이를 근거로 여러 가지 가설이 가능하겠지만 다음의 명제도 그 후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S1) 개체의 誠은 만물의 道理와 맞물린 그 개체의 道理를 이루는 개체의 수행의 성질이다.

이 가설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만물에게 誠이 있고 이 誠이 그 개체나 상태의 정체적 활동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 誠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가 하나의 과제가 될 것이다. 이 절은 이 誠을 음양적 지향성으로 파악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작업을 단계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

#### (다1) 음양적 지향성의 모색

“음양적 지향성” 개념을 구성하고자 할 때 요구되는 것은 먼저 음양개념일 것이고 다음으로 이 음양 개념이 어떤 의미에서 지향성을 갖는가의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다. 음양개념은 여러 가지로 접근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그 중의 한 연구<sup>12)</sup>를 참조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한다.

- (Y1) (D1) X와 Y는 **음양 관계**에 있다 ⇔
- (D2) X와 Y는 대상들  $z_1, z_2, \dots, z_n$  로 이루어지는 총체의 체계 Z안에서 특정한 대상, 사건 또는 기능  $z_i$ 를 구성하는 상호 불가피한 두 요소이다;
- (D3) X와 Y는 하나가 요(凹)와 같은 방식으로 작용하면 다른 하나는 철(凸)과 같은 방식으로 보완 작용한다;
- (D4) 체계 Z에서, 어떤 대상들  $z_i$  와  $z_j$  는 각기의 음양적 요소들  $X_i$ 와  $Y_i$  그리고  $X_j$ 와  $Y_j$  의 관계에 의하여 상호감응의 관계에 들어 갈 수 있다;
- (D5) 체계 Z 의 구조는 이들의 음양적 요소들에 의하여 Z의 적어도 하나의 특정한 대상  $z_j$  에 의해 표상될 수 있다;
- (D6) X와 Y는 다른 대상들  $z_j$ 로부터 영향을 받아,  $X(z_j)$ 와  $Y(z_j)$ 로 행동하고, 그 영향의 성격에 따라 X와 Y의 관계는 추이될 수 있다;
- (D7) X와 Y의 관계는 그들의 시간적 단계들  $X_i, X_{ii}, X_{iii} \dots$  과  $Y_i, Y_{ii}, Y_{iii} \dots$  간 에 대응하는 관계들로 구성되는 과정성을 갖는다; &
- (D8) 앞의 단계들 (D6)과 (D7)은 단일성이 아니라 반복성으로 지속된다.

음양 관계에 대한 이러한 규정은 단언적일 수도 결정적일 수도 없다. 잠정적인 이해에 의하여 다음으로 물을 수 있는 물음은 이러한 음양 관계가 어떤 의미에서 지향성을 갖는 것인가라는 점이다. 문맥에 따라서는 X와 Y의 음양 관계만으로 충분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음양 관계는 양자 뿐 아니라 총체적 문맥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 논의를

---

12) 참조: 정대현 「음양관계 개념의 유기적 분석」, 『철학적 분석』, 한국분석철학회 편, 제4호(2001 겨울), 1-22; 접속사 “⇔”는 양자의 관계가 필요조건인지, 충분조건인지 또는 필요충분조건인지에 대해 미확정적인 관계를 나타낸다.

필요로 하는 문맥에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지향성은 X와 Y의 음양적 관계 안에서 구체적 요소나 국면들의 관계의 명시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Y1)과 (나)절의 마음 복합성 명제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명제가 가능할 것이다.

(Y2) x와 y는 tn에 **음양적으로 지향적**이다 ⇔  
x와 y는 체계 Z1에 속하고 Z1의 tn-1에서 tn에 이르는 변화 C에 따라 x와 y는 tn-1에서 가졌던 관계와는 다른 **요철(凹凸)의 (Y1) 관계**를 tn에 현저하게 갖는다.

마음 복합성 명제와 음양 관계 명제는 지향성이 어떤 운동 상태의 “관심 있는 현저 성질”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 방식은 원인 개념에 의해 지지될 수 있을 것이다. 맥키가 원인 개념을 다음과 같이:

(S2) a는 b를 야기(인과)한다 ↔ a는 b를 야기(인과)하는데 있어서 필요하지 않지만 충분 한 한 조건의 충분하지 않지만 필요한 부분이다<sup>13)</sup>

로 제안하였을 때, 결과 사건 b를 야기하는 원인 사건 a는 그 인과관계 고리 연쇄 상에서 배타적 유일성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많은 사건들 중 “관심 있는 현저 성질”의 사건이다.

그렇다면 誠의 지향성 개념은 명제들 (Y2)와 (S1)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Y3) x는 y를 향하여 tn에 **(至)誠**을 다 한다 ⇔  
x는 y를 향한 tn-1 관계에서 tn 관계에로의 전환에서 도리(道理)를 구성하는 참다움을 기준으로 **음양적 지향성 전환**을 수행한다.

---

13) J. L. Mackie, "Causes and Conditions", *Causation and Conditionals*, ed., Ernest Sosa, Oxford University Press, 1975(1965), pp. 15-38.

그러나 성의 지향성 명제 (Y3)은 단순한 모델이다. x와 y가 동일한 체계 안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상정한 것이다. 그리하여 이를 다음처럼 일반화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Y4) x는 y를 향하여 tn에 **(至)誠**을 다 한다 ⇨  
x는 y를 향한 tn-1 관계에서 tn 관계에로의 전환에서 x와 y가 각기 속하는 공동체의 체계들 S1와 S2의 간주관적 체계의 도리(道理)가 제시하는 成物을 기준으로 **음양적 지향성 전환**을 수행한다.

(다2) 존재 유형의 誠:

정보 처리의 복합성의 정도에 따른 마음의 음양적 지향성의 誠의 능력을 만물에 부여할 수 있다면 그러한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무기물, 식물, 동물,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誠의 능력은 확인할 가치가 있다.

무기물의 誠 능력은 개체의 정보체계가 그 자체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주변체계와 갖는 **상호작용**(유지, 적응, 양위)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울산바위 또는 남극의 `라르센-B' 빙봉<sup>14)</sup>은 그 개체의 정보 체계가 새로운 환경 정보 입력으로 유지 체계를 바꾸어 적응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붕괴하는 과정을 겪는다.

식물의 誠 능력은 무기물과 달리 **방향적 운동성**을 갖는다. 흙으로부터 자양의 정보를 입력할 뿐 아니라 그 신진대사를 위해 빛이나 물의 방향으로 잎이나 뿌리를 뻗어 유기체의 활성화된 정보처리를 이룩해 낸다. 주변의 개체들과도 상호작용을 하며 역동적 적응을 해 내는 경우들이 보고 되고 있다.

동물의 誠 능력은 보다 복합적 구조를 갖는다. 동물은 **목적적 운동성**을 갖는다. 먹이 채취, 새끼 보호, 공격, 먹이나 위험의 보고, 도피,

---

14)

[http://sejong.kordi.re.kr/literature/polar\\_sense/21\\_larsen\\_retreat\\_web\\_slaves/text.htm](http://sejong.kordi.re.kr/literature/polar_sense/21_larsen_retreat_web_slaves/text.htm)

메이팅, 군집, 으로 불리는 행동 양태를 나타낸다. 물론 이들은 인간언어 체계에서의 채취, 보호, 공격, 보고들이 갖는 논리와는 다르다. 예를 들어, 인간 언어에서의 보고는 참말과 거짓말의 구분이 전제되지만 동물 언어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정보처리의 복합성의 차이라고 간주된다.

인간의 誠 능력은 우리가 주목하는 대로 충분히 복합적이다. 인간은 무기물, 식물, 동물의 국면을 가지고 이 차원의 成己의 誠 능력을 가지고 또한 인격자로서의 成己의 誠 능력을 가진다. 인간은 더 나아가 타자(사람, 동물, 식물, 무기물)에 대하여 이들이 각기 체계에서 표시되는 도리의 성물 기준에 따라 성물의 부정적 조건을 제거하고 긍정적 조건을 지원하는 방향의 행위를 수행한다. (초고\_041201)